

‘사라진 꿀벌 모시기’ ...장성군, 양봉농가에 7억대 지원사업

꿀벌 감소 대응 ‘기자재·구제약품’ 등 발 빠른 지원 “벌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양봉산업 안정화 도모”

장성군이 꿀벌 개체 수 감소로 피해가 큰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발 빠른 지원에 나선다.

장성군은 양봉농가 피해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기자재·구제약품’ 지원 등 10개 사업에 총 사업비 7억1000만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양봉 농가는 물론 꿀벌 수분(受粉)에 열매 맺음을 의존하고 있는 농업계 전반에 위기가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갑작스런 꿀벌 실종은 장성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들어 꿀벌 감소 신고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장성군이 발 빠르게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벌통 1개(군)에 1만5000여 마리에서 2만여 마리의 꿀벌이 들어 있어야 하지만 전체 1만60군 가운데 60%에 해당되는 6100군의 꿀벌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심각성을 인지한 장성군은 양봉농가에 기자재와 채밀대차를 지원하는 우수봉군 지원사업 추진에 나섰다. 특히 채밀대차 지원은 수평 운반차에 꿀을 뜨는데 필요한 ‘탈봉기·채밀기·발전기·비상 차단기’가 모두 탑재돼 있어 양봉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여기에 응애, 노제마, 남충봉아부패병 등 꿀벌의 주요 질병 차단에 쓰일 구제약품 보급과 양봉·사양 관련 기술교육도 함께 추진한다.

또 안정적인 채밀 기반 조성을 위해 삼계면 1.8ha, 북하면 10ha 규모 부지에 대포 밀원인 아까시나무를 집중 식재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장성군은 도시 컬러마케팅으로 추진 중인 ‘엘로우시티 장성’의 관광 콘텐츠 확대를 위해 향후 ‘황금빛 꿀’과 ‘노란색 꿀벌’ 이미지를 도시 브랜드에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꿀벌 실종으로 고통 받는 지역 양봉농가를 아낌없이 지원해 벌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양봉산업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사진은 수평 운반차에 꿀을 뜨는데 필요한 ‘탈봉기·채밀기·발전기·비상 차단기’가 모두 탑재돼 있는 채밀대차 모습. 양봉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담양군 봉산면 지사채, 정기 운영회의 개최

맞춤형 특화사업계획 논의

담양 봉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고진성·진철)는 최근 관내 민관 협력 복지 나눔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진행하던 봉산면 이음반찬 나눔 활동과 담양에꽃의 홀로사는 노인 요거트 지원 사업, 우리식당 밑반찬 기탁과 쌀고춧가루배의 취약계층 갈비세트 나눔 사업 등 민간 후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체 위원들은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집수리사업과 사랑나눔 생필품꾸러미 드림사업,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유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우리사랑 영원히 기부행복사진과 흠뻑어르신 생선초대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매천아카데미 강좌 수강생 모집

향토인문학 등 4개 강좌...수강생 40명 내달 1일까지

구례군은 지역민의 문화가 있는 삶을 위해 2022년 구례매천 아카데미 수강생을 오는 21부터 4월 1일까지 모집한다.

작년에 진행된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수강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은 만큼 올해도 주민 관심 분야를 반영하여 강좌를 구성했다.

이번 강좌는 기존 독서문화진흥프로그램 명칭을 ‘구례매천아카데미’로 변경하고,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원 발굴과 편찬 작업을 통해 향토 인문학 아카이브로 활용할 계획이다.

수강생 40명을 통합 모집하여 개별 강좌별로 수강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한다.

주요강좌는 ▲향토인문학(10·19항쟁과 구례) ▲글쓰기강좌(에세이쓰기 기초반) ▲그림책 스케치(오래된 풍경) ▲클래식·영화음악감상 4개 강좌다.

향토인문학 강좌는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연구원인 문수현 박사가 10·19순항의 역사적 배경과 영향을 구례인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그 흔적을 답사하면서 구례인의 상처를 위로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글쓰기수업은 좋은 글을 읽고 글쓰기의 기초를 배운 뒤, 스스로 창작하고 합평하면서 표현과 창작의 의미를 파악하는 강좌로 구례 출

신 대표 소설가 정지아 작가가 지도한다.

그림책 스케치 강좌는 구례읍성 내 노포를 어반스케치를 활용해 잊혀 가는 소소한 일상과 내 주변의 풍경들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수강생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새로 개설된 특별강좌 클래식 음악감상은 악기의 구성과 소리, 멜로디, 리듬, 화음을 느끼고, 영화음악은 영화의 시대적 상황 및 의미를 먼저 이해하고 청음하는 순으로 진행하여 입문자에게는 맞춤형감상 기회가 될 것이다.

구례매천아카데미 강좌는 수강생 전원이 오리엔테이션과정을 거쳐 4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천도서관 다목적실 등에서 격주로 진행될 계획이다.

구례=박진호기자

나주시 임업후계자협회 식목일 기념 나무 나누주기 행사



나주시 임업후계자협회(회장 정인태)는 제 77회 식목일을 기념, 지난 17일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열고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자발적 나무심기를

활성화하고 임업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임업후계자협회는 이날 행사를 통해 사전 조사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체리나무, 블랙사파이어, 자두나무 등 3종 총 2700여본을 시민들과 나눴다. 묘목 전달은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인태 협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과 나무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농사 고민, 화순군 농업인상담소에서 해결하세요”

농업기술센터 현장중심 맞춤형 농촌지도사업 확대



화순군이 영농 현장의 기술적 애로 사항을 신속한 해결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농업

인상담소를 운영하며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군은 21일부터 동북면에서 운영해 오던 동북·백이면농업인상담소를 백이면에서도 운영한다.

백이면 농업인 편의 증대와 효율적인 영농 지도를 위해 아산복지회관 사무실에서 동북면과 격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2개 읍·면씩 6개소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며 농업기술, 귀농귀촌 상담부터 영농현장 지도에 이르기까지 농업인이 체감하는 지도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영농현장 애로 기술을 발굴해 신제품, 주요 병해충 경감 신기술 도입 등 지역에 맞는 실증재배 사업을 추진하며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소외되는 지역 없이 다양하고 신속한 영농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날 포스코A&C